

러시아, 에너지 · 석유화학 투자 요청

연해주에 석유화학 · LNG · 가스화학 건설 추진 ... 국내기업 대거 참석

러시아 연해주에서 <한국-러시아 에너지 자원 및 건설 협력 설명회>가 열렸다.

블라디보스토크 주재 한국 총영사관(총영사 이양구)에 따르면, 설명회는 한국 외교통상부와 연해주 주정부 공동 주최로 연해주 블라디보스토크 현대호텔에서 10월17일 개최됐으며 연해주 경제계 · 학계 인사와 한국 경제계 인사 등 150여명이 참석했다.

설명회에서 한국가스공사, 석유공사, 해외건설협회, 삼성물산, 포스코P&S, 풍림산업, 농어촌공사, 농수산물유통공사, 삼일회계법인 등 한국 참가기업들은 석유 · 가스개발, 플랜트, 농업 분야에서 국내 기술과 노하우, 해외 진출 상황 및 전망 등에 대해 소개했다.

러시아 측에서는 연해주 주정부의 에너지 · 경제 · 산업 · 교통국 관리들이 발표자로 나서 현재 연해주에서 추진되고 있거나 추진될 예정인 에너지, 물류, 인프라 건설 등의 프로젝트들에 대해 설명했다.

특히, 주정부 측은 나훔카 석유화학단지 건설, 블라디보스토크 공항 현대화, 연해주 보스토치니 및 포시에트 항만 현대화, LNG(액화천연가스) 및 가스화학공장 건설 등의 대규모 사업에 한국기업의 참여를 촉구했다.

설명회는 2012년 9월 블라디보스토크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(APEC) 정상회의를 앞두고 한국과 러시아 극동지역 간 협력 가능성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열려 양국의 관심을 끌었던 것으로 알려졌다.

블라디보스토크에 이어 10월18-19일 하바롭스크, 10월20-21일 사할린에서도 설명회가 이어질 예정이다. <저작권자 연합뉴스 - 무단전재 · 재배포 금지>

<화학저널 2011/10/19>